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5/34℃ 목포 25/32℃ 여수 25/31℃
단기 4343년 (음력 7월 1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59호 1판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반환점 돈 MB정부…광주·전남 2년6개월은

경제 위축·인사 소외 호남 위기감 커졌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된다.

하지만 지난 2년6개월간 이명박 정부와 광주·전남 민심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MB 정부에 지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탕평인사, 양극화 극복, 국민화합 등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문화·역사적 배경을 외면하고 경제 및 인구 위주로 편성된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이 되레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초광역권 4대 벨트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남해안 선벨트는 여태껏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장밋빛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 재정이 위축되고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영남 등 특정 지역에 치우친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는 지역민의 심정적 소외감을 가중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인재 풀'의 한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배려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향토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지역에서는 '호남 위기론'과 '겨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 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군사 정권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제시한 일부 공약들도 흐지부지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와의 소모적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도 지역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즉,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공과를 안고 새로운 비전을 개척하기 보다는 '잃어버린 10년'등으로 대변되는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북관계와 미숙한 외교는 지역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 탈출은 성공했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는 아직까지 서민에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권 하반기 이명박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소통 확대를 통한 국민 통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힘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며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명박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준비 한창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 개막을 10여일 앞둔 2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의 국보급 조각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를 설치하고 있다. 쓰촨 미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이 조각상들은 중국의 농민 혁명 모습을 형상화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기아차 '50만대 증산' 6개월 표류

충원·증설 등 투자 늘린 협력업체들 피해 호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50만대 재편 사업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가 증산과 관련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인력재배치를 위한 부서협의 파행으로 아직까지 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증산 계획만 믿고 인원 충원과 설비 증설에 투자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와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 2월12일 광주1공장 쏘울 증산과 광주2공장 스포티지R·쏘울 혼류 생산 및 증산 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50만대 재편 사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포티지R을 주력으로 하는 광주2공장은 당초 35UPH(시간당 생산대수)에서 42UPH로 생산을 늘렸다. 또 스포티지R과 쏘울을 함께 생산하는 체제를 갖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쏘울을 주력으로 하는 광주1공장은 37UPH에서 42UPH로 증산하기로 했지만 인원 조정을 논의하는 부서협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6개월이 넘도록 증산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 대의원들이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부서협의에 참여하지 않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2공장 잉여 인원이 1공장에 투입되는데 2공장의 부서협의가 늦어진데다 사측이 대의원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파행의 원인을 사측에 돌렸다.

이같은 1공장의 부서협의 파행으로 쏘울 연 2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던 회사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증산이 안되면서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울의 고객주문 대기물량은 2만4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광주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증산 계획에 발맞춰 인원을 늘리고 설비를 확장하는 등 투자를 하고도 증산이 지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아차 협력업체 임직원 40여명은 지난 20일 노조 사무실이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노사 양측에 조속한 증산 합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아차 노사의 증산 합의에 따라 인원 충원과 설비 증설에 투자했다"면서 "쏘울의 생산 지연으로 인건비 부담과 설비 증설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사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공식 사퇴했다.

〈관련기사 5면〉

전 청장은 22일 '민선 5기 서구청장 직에서 물려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행복 서구호의 선장 부재로 서구 발전이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구청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죄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남은 여생은 속죄의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전 청장이 청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서구청 간부를 통해 승진대상자 2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이런 여름 처음"

기온 30도 이상 무려 57일 처서 이후에도 폭염 계속

섭씨 33도를 넘어가는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3일은 더위가 한풀 꺾이는 처서(處暑)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여전히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예보돼 있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이날 현재까지 8월 평균 기온이 28.5도로, 평년(26.6도)에 비해 1.9도, 7월 평균기온도 26.3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높게 기록됐다.

더욱이 올 들어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기록한 날은 57일이며, 특히 33도 이상 기록한 날이 15일이나 됐다. 지난해 30도 이상이 46일, 33도 이상이 6일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광주지방기상청의 진단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의 확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월에 접어들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기후자료센터(NCDC)의 조사결과 올해 3~6월의 지구표면 온도가 1880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도 지구온난화와 '비정상적인 폭염'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23일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며 "당분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